

## 中世哲學과 基督教(4)

金允經

### 八. 스콜라(Schola)哲學

그리스도 敎理의 組織은 어거스티누스로 因하여 한 段落을 지었다할찌나 다시 그 敎理를 哲學的으로 組織하려한 것은 『스콜라』 哲學이외다. 그리하나 馭車 스티누쓰 [어거스티누쓰] 以後로 『스콜라』 哲學이 일어나기까지에는 大約 四百年의 間隙이 있습니다. 이 동안이 歐洲의 歷史上에 이르는 바 暗黑時代외다. 이때는 北方의 蠻民(저맨 [게르만] 族)이 로마 帝國(패틴族)을 蹂躪한 뒤 오래스동안 燦爛하던 헬라, 로마의 文物이 滅絶되게 되었던 것이외다. 이 暗黑時代に 唯一한 光明을 發하면서 野蠻族을 敎化하고 또 헬라, 로마의 古代 文物을 保存한 것은 當時의 敎會였습니다. 古文明의 遺物인 文學上 美術上의 무엇임을 不拘하고 애김없이 破壞하는 蠻民을 壞柔시킬수 있는 것은 오직 宗教的 勢力이였습니다. 어그스티누쓰의 思想으로 因하여 基礎가 굳고 또 强하여진 로마敎會의 大組織, 이 宗教的 大勢力이 비롯오 그들 蠻民을 잘 敎化하여 그들로 하여금 헨리, 로마의 文化를 理解하게 만들게 된 것이외다. 저맨族으로 하여금 패틴의 뒤를 잇대어 文化 相續者가 되게 하여 자못 오늘날 文化의 主人公이 되게 한 것은 敎會의 功績이외다. 다시 말하면 갈스곳을 모르게 된 暗黑時代를 當한 古文化는 寺院과 修道院에서 避難所를 發見하게된것이외다. 中世期에 對한 知的 事業은 勿論이고 産業까지 凡百의 社會의 指導者는 敎職者들이였습니다. 그들은 當代 知識의 倉庫였습니다. 이 같이 社會 各般을 支配하기에 紛忙하게된 때문이었던지 어거스티누쓰 以後 約 四百年 間은 그들 中에서도 이렇다 할 學者가 나타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더니 第 八世紀頃에 이르러 그 敎義를 가르치는 學校 即 『스콜라』 (Schola)가 設立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敎鞭을 잡은 敎師는 다시 信仰과 哲學을 結合하여 哲學으로 敎義를 說明하고 論證하고 組織하고 敎誨의 信仰을 다시 敎會의 學問되게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이른바 『스콜라』 哲學이 일

어나게 되었습니다. 大抵 敎會의 敎義의 가르치는 바는 무엇을 믿을까 함이다. 가령 敎義는 神은 사람 된다(Deus Homo)고 가르치는 것이외다. 이에 對하여 왜 敎義를 믿을까 卽 무슨까답으로 神은 사람이 되었는가(Cur deus Homo)를 물은 것이 『스콜라』 哲學이외다. 그리하여 『스콜라』 哲學의 問題는 이에 그치고 다시나아가아 神은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되었는가에 對하여는 묻지 아니하였읍니다. 『스콜라』 哲學에 依支하던 敎會의 信仰은 絶對的 眞理요 哲學의 意義는 이 既定의 眞理를 理性的으로 理解시킴에 있는 것이외다. 一切의 獨斷을 批除하고 理性에 달아 眞理를 合理的으로 探求하려고는 하지 아니하는 故로 『스콜라』 哲學은 純粹한 哲學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하는것입니다. 페트루쓰(Petrus Domiane)가 이른 바 대로 『스콜라』 哲學은 神學의 婢僕에 不過하는 것이외다. 『스콜라』 哲學의 問題는 上述과 같이 眞理 그것의 探求가 아니고 定하여진 眞理의 說明에 있는 故로 그 眞理의 說明 그것과 論證의 方法 그것은 實로 細密, 昭詳을 極한것이외다. 그 結果 그 內容이 空虛하여서 다만 論理의 形式을 戲弄하는 煩瑣哲學이란 別名을 얻게 됨도 여기에 있는 것이외다. 『스콜라』 哲學은 大體로 三期로 난우어 (一) 擧立 時代(九-十二世紀) (二) 全盛 時代(十三世紀) (三) 衰亡 時代(十四-十五世紀)로 區別합니다.

#### 九. 스콜라哲學 擧立 時代(九-十二世紀)

『스콜라』 哲學의 濫觴이된 것은 아일랜드人 에리우게나(Janm Scotus Eriugena, 800-810頃)의 所說이외다. 그는 交會의 信仰을 理性的으로 論證하여 哲學과 宗教의 結合을 表示하여 『스콜라』 哲學의 一般的 傾向을 代表하는 先驅者가 된 것이외다. 그 외 有名한 말의 『眞正한 宗教는 眞正한 哲學이며 眞正한 哲學은 眞正한 宗教라』 라고 하였읍니다. 그의 著書로는 『自然의 區分』 (De divisione Naturae) 『神의 預定』 (De divina Praedestinatione)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自然에는 네 階段이 잇습읍니다. 第一은 지음을 받음이 아니고 다만 짓는者」인데 이는 곳 神이며 第二는 지음을 받기도하고 또 스스로 다른 것을 짓는者」인데 이는 곳 『포고쓰』 (Logos)며 第三은 지음을 받기는 하였으며 다른 것을 스스로 짓지는 못하는者」인데 이는 곳 現像世界며 第四는 지음을 받지도 아니하고 또 짓지도 아니하는者」인데 이는 곳 神에게 다시 돌아가는 世界외다. 이 中에 『포고쓰』는 神과 現像世界의 中間에있는 世界의 原型이며 플라톤의 『이데아』 (Idea)世界에 相當한것이외다. 普遍的 概念을 實在라하고 個物은 假象에 不過한다는 플라톤의 『이데아』說이 復活된것이외다 이는 中世의 所謂 實在論(Realism)이외다. 中世에 對한 實在論이란 것은 普通的 概念으로써 實在라

보는 것인 즉 普通으로 이르는 實在論과는 反對요. 觀念論(Idea)이외다. 에리게나의 理性을 尊重히 보는 傾向은 『노시쓰』의 實在기 때문에 敎會의 正統派는 異端者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두로 約 二世紀 間은 注意할 만한 學者가 나지 아니하고 第 十一世紀에 이르러서 참 『스콜라』 哲學의 卹立者라 할만한 알썸이 出現하게 되었습니다.

#### 一〇. 안 썸 [안셀름]

안썸Anselm, of Canterbury, 1033-1109)은 『스콜라』 哲學의 基礎를 確立한 學者요 참 卹立者라고 보는者외다. 그의 말을 들으면 信仰은 知識보다도 먼저 있는 것이나 信仰과 知識은 一致할 만한 것이요. 何等의 衝突할 만한 것은 아니외다. 信仰을 단지 믿는 것에 그친다 보는 立場도 있으나 다시 나아가야 理性으로 이를 說明 할수도 있는 것이외다. 우리가 信仰하는 것은 다시 나아가야 眞理를 밝히게 하는 것이외다. 卽 『알기 때문에 믿는다』 (Credout intelligentia)함은 그의 名言이외다. 그러나 勿論 이 말은 知識을 信仰 우에 둠을 意味함은 아니외다. 信仰과 知識의 一致는 그에게는 前提가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그는 理性에 因하여 플래톤의 普遍的 概念의 實在論을 根據로 하여 神의 存在를 證明한 것이외다. 이것은 나중의 칸트(Kant)의 『純粹理性 批判』 中의 批評으로 有名하게된 神의 存在의 本體論(或은 實體論)的 證明(Ontological argument)이 된 것이외다. 神이란 것은 그 以上으로 完全한 者는 없는 絶對的 完全 者외다. 그러한데 이러한 것이 神이라하면 神은 반듯이 있습니다. 웨그러나 하면 神이 없다고한 즉 神의 性質 中에 存在란 것이 없이 되어 神을 絶對的 完全한 것은 되지못하겠는 까닭이외다. 絶對的 完全한 것이라면 存在를 包含하지 아니하면 아니됩니다. 이 議論에 對하여는 이미 當時 까우닐로(Gaunilo)에게 反駁되었고 다시 近世의 칸트로 因하여 完全히 되었습니다. 까우닐로는 反駁하기를 絶對完全者로서의 神의 概念으로 붙어 神의 存在를 證明할수 있다면 우리는 古代人의 想像한 『幸福된 섬』(아틀란타島)의 存在도 그 概念으로 붙어 存在를 證明할수 있지 않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칸트의 批判은 存在하는 것은 概念的 性質이 아닌 故로 神의 概念으로서는 같다 할찌라도 前者는 存在하고 後者는 概念에 不過한다는 理由는 前者는 經驗的으로 認識할수 있는 까닭이외다. 卽 存在라는 일은 經驗的 認識이라는일에 關係하는 것으로서 存在와 그 概念과의 區別할 만한 點이 외다 이 證明은 알썸과 한 가지로 中世의 많은 神學者에게 採用된 것이외다. 우의 證明과 아울러 그의 말로서 有名한 것은 所謂 滿足說(Doctrine of satisfaction)인데 이것은 그의 著書 『무슨 까닭으로 神은 사람이 되었는가』 에 말하였습니다. 萬物은 神의 發現임으로 神의 光榮을

나타낼 수 것이지만은 神에게 創造를 받은 最高의 者 天使는 받은 自由를 誤用하여 罪를 犯하였습니다. 이 드럽힌 神의 光榮은 報償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는故로 人類가 倉造될 것인데 原人 아담도 또 罪를 犯 하였습니다. 이에 救濟 問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天使의 墮落은 永遠的이지만은 人類에게는 救援의 可能性이 있습니다. 이는 人類는 子子孫孫 相繼하여 一體를 일우나 天使는 그렇지 아니한 까닭이외다.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나타나고 天使로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이 까닭이외다. 그리하여 人類의 墮落에는 救贖의 길 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可能한가 사람의 犯한 罪는 스스로 救할 수 것임니다. 그러나 罪를 贖하는 일은 사람 스스로는 不可能하고 神的인 者만이 可能한 것이외다. 그러한 故로 神의 光榮을 나타내고 그 義를 滿足하게 하는 者는 사람이요. 神的인 者 即 神人 그리스도외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罪없이 十字架上에서 돌아가시고 全 人類를 救贖한 것이외다. 이같이 하여 人類는 그리스도로 因하여 代贖되고 滿足한 審判에 參詣할 수 있게 된것이외다. 神은 어찌하여 사람이되었는가도 이것으로 說明하였습니다. 即 神이 사람의 罪를 代償하기 때문이외다. 그러한즉 이것은 神의 恩寵이라 할만한 것이외다. 이것은 어거스티누스說에 依支한 것이외다. 이미 말한대로 敎父 哲學者 들로 因하여 대강 決定된 神性論, 人性論, 그리스도論의 모든 問題는 알됨으로 因하여 組織되고 說明 되었습니다.